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챌린지 시작!

**김주영 노동본부장 시작으로, 김민석·윤호중 등
선대위 주요 인사 릴레이 참여**

**김주영 본부장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오는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

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21일 오후 당사 브리핑룸에서 택배 물류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는 제작한 이미지를 출력해 서명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며, 다음 참여자 2인 이상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22일 오후 김주영 노동본부장을 시작으로,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총괄본부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며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끝/

첨부. 김주영 본부장 챌린지 사진 및 챌린지 이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

6·3 대선 **임시 공휴일 휴무 보장**

1	 CJ대한통운	
2	 coupang	
3	 한진택배	
4	 롯데글로벌로지스	
5	 LOGEN 로젠택배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_____ (인)

